

이의리만 나오면...의리없는 선배들

막내 올리는 선배·벤치에 KIA 팬들의 울화통이 터진다.

최하위 싸움 중인 KIA 타이거즈를 지켜보는 팬들에게는 올 시즌 위안거리가 하나 있다. 이순철 이후 계보가 끊인 신인왕 명맥을 이을 강력한 후보 '특급 루키' 이의리의 피칭을 지켜보는 것이다.

외국인 원투펀치 빠진 마운드에서 묵묵히 역할을 하는 막내에게 팬들은 위안을 얻고 박수를 보내고 있다.

최하위까지 떨어진 성적에도 불구하고 KIA 팬들은 KT와의 원정경기가 열린 22일에도 선발 이의리를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고 TV 앞에 앉았다. 4회까지는 팬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이의리는 KT의 테스파이네를 압도하는 피칭으로 1-3회를 삼자범퇴로 틀어막았다. 눈길끄는 강백호와 프로 첫 대결에서는 5구 승부 끝에 2루수 플라이를 만들었고, 황재균의 은근한 견제에도 헛스윙 삼진을 잡아냈다.

4회에는 1사에서 배정대에게 이날 첫 안타를 내줬고, 2사 2루에서 황재균에게 볼넷도 허용했지만,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1-0으로 앞선 5회 팬들은 두 번 기습을 쳤다.

5회초 김민식과 이창진의 연속안타로 만들어진 무사 1·2루에서 오선우가 번트 실패 뒤 삼진을 당하는 등 단 한 점도 뽑지 못하고 KIA의 공격이 끝났다.

5회말에는 기록되지 않은 실책 2개가 이의리의 자책점으로 돌아왔다.



벤치 작전 실패·야수진 눈에 보이지 않는 실수 대량 실점 12차례 선발 등판 3점 이상 뽑아준 경기 4차례 불과

김민혁의 중전안타로 시작한 5회, 강민국의 2루 땅볼 때 의욕 넘친 1루수 황대인이 공을 잡으면서 스텝이 꼬였다. 이의리가 1루 베이스 커버에 들어갔지만 평범한 땅볼 타구가 내야안타가 됐다.

허도환의 희생번트에 이어 심우준의 볼넷으로 1사 만루가 됐고 아쉬운 장면이 또 나왔다.

조용호와의 승부에서 이의리가 좌익수 플라이로 아웃카운트와 점수를 바꾸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전진수비를 선택했던 벤치의 바람과 달리 공이 멀리 날아갔고, 좌익수 오선우가 타구를 쫓아갔지만 마지막 순간 공이 글러브 맞고 떨어졌다. 그 사이 3명의 주자가 홈에 들어왔다. 실책이 아닌 안타가 되면서 모두 이의리의 자책점으로 기록됐다.

이의리는 강백호의 적시타에 추가 실점하며 5이닝 87구 5피안타 3볼넷 3탈삼진 4실점의 패전투수가 됐다.

이의리 등판날 유독 야수진의 실수가 눈에 띈다. 공식 실책으로 기록된 실수만 6개, 실책으로 남지 않은 실수도 많다.

'어린 선수의 등판이라 더 긴장된다. 잘하려면 보니 잘 안된다'는 것은 핑계다.

정작 이의리는 '올림픽대표 발탁'이라는 소식을 접한 날에도 SSG 타선을 상대로 10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는 등 5.2이닝 무실점 피칭을 하며 프로의 면모를 보여줬다.

특정 지원도 시원찮다. 이의리가 마운드에 있는 동안 3점 이상을 뽑아준 경기는 4차례, 남은 8경기에서 선배들은 단 8점을 만드는 데 그쳤다.

공수에서 이의리를 외롭게 만드는 선배들, 벤치의 전략도 아쉽다.

이의리의 3패째가 기록된 22일, 이날 1군으로 콜업된 오선우가 공수에서 고개를 숙였다.

수비가 약한 오선우는 5회말 수비에서 아쉬운 수비로 대량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다. 그렇다고 오선우를 선발 투입한 윌리엄스 감독이 공격으로 재미를 본 것도 아니었다.

5회초 무사 1·2루에서 벤치는 오선우에게 번트 지시를 내렸다. 번트 자세를 취한 채 초구 스트라이크를 지켜본 오선우는 다시 번트를 시도했지만, 공이 뜨면서 파울이 됐다. 결국 오선우는 강공 전환 뒤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전력 극대화를 위해 세세한 기용과 전략이 필요하지만, 벤치의 이도 저도 아닌 선택으로 오선우는 공수에서 모두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며 패배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올림픽 축구 대표팀 김학범 감독이 22일 오후 경기도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소집 훈련에서 선수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잔디에 익숙해져라”... 김학범호 실전체제 훈련

올림픽 조별리그 1차전 한달 앞두고 경기장 시물레이션

“일본의 잔디는 짧고 물기가 가득해 볼의 스피드가 빠릅니다. 미리 대비해야죠.”

김학범호 올림픽 축구대표팀의 2차 소집훈련이 시작된 22일 오후 파주NFC(축구대표팀트레이닝센터). 오후 훈련이 예정된 그라운드에서 스프링클러가 일제히 작동하며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냈다.

하지만 스프링클러 작동은 평상시보다 길었고, 그라운드 한편에는 소방 호스까지 등장해 '잔디 적시기'에 일조했다.

한여름에 가까워지면서 기온이 올라 잔디가 마르지 않도록 조처를 한 것으로 보였지만 모두 김학범(61) 감독의 지시였다.

이날 첫 훈련이 끝나고 난 뒤 취재진과 만난 김 감독은 “일본 경기장들이 보통 잔디가 짧다. 그런 데다 물을 많이 뿌려서 많이 미끄러운 상태”라며 “우리 선수들이 비슷한 환경에 적응하도록 훈련장 잔디도 평소보다 짧게 깔고 물도 많이 뿌렸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7월 22일 오후 5시 일본 가시마의 가시마 스타디움에서 뉴질랜드와 올림픽 남자축구 조별리그 B조 1차전을 치른다.

사실상 조별리그 1차전 D-30을 앞두고 김 감독은 “실전 체제”로 훈련의 디테일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다.

김 감독은 “일본 경기장들도 시설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잔디에 물도 많이 뿌린다. 또 가만히 있어도 잔디가 젖을 정도로 밑에서 물이 차오른다”라며 “항상 잔디가 젖어 있어 볼의 스피드가 빨라 미리 적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감독은 더불어 조별리그 상대 팀들의 전력분석을 위해 최근 경기 비디오 영상 확보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A대표팀들과 달리 올림픽 대표팀은 경기 자체도 많지 않아 최신 자료를 얻는 게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김 감독은 ‘인맥’을 통한 자료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김 감독은 “우리나라와 맞붙는 뉴질랜드, 루마니아, 온두라스와 상대했던 올림픽 출전국들을 대상으로 전력분석 자료를 얻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며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자료와 서로 맞바꾸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그는 “뉴질랜드는 2019년 9-10월 올림픽 예선 이후에 경기를 치르지 않은 상태. 자료도 너무 옛날 것”이라며 “호주, 영국, 미국에서 뛰는 선수들이 합류할 전망이지만 당시 예선전에는 호주에서 뛰는 선수들 위주여서 새로운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루마니아 역시 최근 완전체로 훈련하지 않았다. 7명이 A대표팀에 차출된 상태라 이들이 함께 된 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다”라며 “그나마 온두라스는 지난 3월 북중미 올림픽 예선을 치른 터라 최신 자료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감독은 “축구협회는 물론 전력분석관이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최신 경기 비디오 자료를 구하기도 한다”라며 “인맥 축구의 필요성(?)을 강조해 웃음을 자아냈다.

/연합뉴스

‘베테랑 DF’ 최호정, 전남으로

‘잔물수비’ 강화 기대

전남드래곤즈가 ‘잔물수비’에 경험을 더했다. K리그2 선두 싸움이 중인 전남이 FC안양의 베테랑 수비수 최호정(32·사진)을 영입했다.

2010년 대구FC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최호정은 K리그 통산 260경기에 출전한 베테랑이다.

그는 대구에서만 86경기에서 나와 6득점을 기록했고 상주상무, 성남FC, 서울이랜드를 거쳐 2018년 안양으로 이적했다.

지난 시즌에는 주장으로 팀을 이끌기도 했지만 올 시즌 사령탑 교체와 함께 많은 경기에서 나서지 못했다.

최호정은 대인수비와 커버 능력이 탁월하며 넓은 시야와 정확한 패스를 바탕으로 한 빌드업 능력이 좋다. 수비형 미드필더도 가능한 전천후 수비수로서 자원이 풍부하고 다부진 플레이가 전경준 감독의 전술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남의 ‘잔물수비’ 강화도 기대된다. 올 시즌 전남은 17라운드까지 단 12골을 내주며 최소실점 1위를 달리고 있다.

1993년생 장승혁과 고태원, 1996년생 박찬용으로 구성된 중앙 수비라인에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최호정이 가세하면서 물 살 틈 없는 수비진이



구성됐다. 전남에 새 등지를 뜬 최호정은 “전남은 내게 견고한 수비로 강한 인상을 준 팀이다. 수비수로서 전남의 수비 방식과 노하우가 궁금했다. 며칠의 훈련으로 다 알 수 없지만, 감독님 전술의 이해와

접근 그리고 해석이 기존의 제 틀을 깨는 부분이 있었다”며 “훌륭한 선수 및 지도자들이 몸담았던 명문 구단에 입단하게 돼 영광이다. 베테랑답게 선수들과 잘 융화해서 승격에 보탬이 되겠다. 좋아하는 격언이 ‘햇더이 보내지 않은 오늘이 모이면, 햇더이 보내지 않은 인생이 된다’인데 경기장을 찾는 팬들에게 햇더이 보내지 않은 오늘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다. 많이 응원해달라”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스털링 결승골’ 잉글랜드 16강 진출

크로아티아·체코도 16강행

잉글랜드 축구대표팀이 라힘 스텔링(맨시티)의 결승 골을 앞세워 ‘난적’ 체코를 제압하고 조별리그 무패 행진으로 2020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 16강에 진출했다.

잉글랜드는 23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웨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체코와 대회 조별리그 D조 3차전에서 전반 12분 터진 스텔링의 결승 골을 끝까지 지켜내 1-0으로 승리했다.

조별리그에서 2승 1무(승점 7)를 기록하며 D조 선두를 확정지은 잉글랜드는 이날 스코틀랜드를 3-1로 격파한 2위 크로아티아(승점 4)와 함께 16강 직행 티켓을 차지했다.

체코(승점 4)는 스코틀랜드와 승점이 같았지만 상대 전적에서 무승부로 똑같이 골 득실 비교에서 밀려 3위로 내려앉았다.

하지만 각 조 3위 6개 팀 가운데 성적이 좋은 4개 팀에 16강 진출 ‘와일드카드’가 주어지는 상황에서 체코는 3위 팀 가운데 B조 핀란드와 C조 우크라이나(이상 승점 3)를 따돌린 상태로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이날 경기에서 잉글랜드는 ‘주포’ 해리 케인(토트넘)이 3경기 연속 침묵을 지킨 가운데 1차전 결승 골의 주인공이었던 스텔링이 또다시 해결사로 나서면서 힘겹게 조 1위를 차지했다.

조별리그를 무패로 마감한 잉글랜드는 3경기 동안 무실점 선방했지만 단 2득점에 그치는 무던장에 속을 태웠다. 잉글랜드는 볼 점유율에서 57%-43%로 앞섰지만 슈팅 수에서는 오히려 5-7로 밀리는 힘든 경기를 펼쳤다.

잉글랜드는 전반 2분 루크 쇼(맨유)가 투입한 공간 패스를 스텔링이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골키퍼를 넘기는 오른발슛을 시도한 게 체코의 오른쪽 골대를 맞고 나오며 첫 득점 기회를 낳았다.

하지만 결국 스텔링은 결승 골을 따냈다. 스텔링은 전반 12분 잭 그릴리시(애스턴 빌라)가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투입한 크로스를 골 지역 오른쪽에서 번쩍 솟아오르며 머리로 득점에 성공했다. 크로아티아와 1차전에 이은 스텔링의 이번 대회 2호골이었다.

잉글랜드는 전반 26분 케인이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때린 오른발슛이 상대 골키퍼의 손끝에 살짝 걸리며 막힌 게 아쉬웠다.

/연합뉴스